

중기부, 외국인 유학생으로 中企 제조현장 인력난 타개

오영주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
대학 관계자, 유학생 취직 위해
제조 中企 정보, 접근성 등 강조
산학연계형 교육확대 등 협력 약속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 외에도 법무부 심우정 차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희수 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조한교 인력성장본부장, 한국공학대 황수성 총장, 충북보건과학대 박용석 총장 그리고 외국인 인력 채용기업,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E-7 전문비자로 근로중인 외국인 1명 등이 참석했다.

현재 중기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18일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린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동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선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 충북보건과학대)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키로 약

속했다.

오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전체 평균이 2.8%이고 제조 중소기업은 이보다 높은 3.3%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가운데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CXL 시장 열릴 것"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

다양한 장치 간 연결 효율화로
소프트웨어 복잡성·비용 줄여
D램 용량·성능 확장 한계 개선

"올 하반기부터 CXL(Compute Express Link)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최장석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신사업기획팀장(사진)이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삼성전자 CXL 솔루션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CXL은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의미로 CPU, GPU, 스토리지 등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빠르게 연산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CPU 메모리 공간과 연결된 장치의 메모리 간에 메모리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스택 복잡성을 줄이며 전체 시스템 비용을 낮추는 리소스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최 상무는 "각 장치는 빨리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CPU 주위에 있어야 하지만 SSD는 떨어져 있어도 된다"며 "이



를 감안해 'SSD 자리에 D램을 꽂으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XL의 중요성은 D램의 용량 및 성능 확장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AI의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D램은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확장 가능하다. 반면 CXL D램 솔루션은 D램과 공존하면서 시스템 내 대역폭과 용량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장치 간 연결을 효율화 시키는 CXL의 역할 때문이다. 설치 또한 간편하다. CXL은 기존 서버에서 SSD를 꽂던 자리에 그대로 CMM-D를 꽂으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메모리 풀링(Pooling)' 기능을 지원하는 'CXL 2.0 D램'을 공개했다. 메모리 풀링은 서버 플랫폼에서 다수의 CXL 메모리를 묶어 풀(Pool)을 만들고, 각각의 호스트가 풀에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CXL 메모리의 전 용량을 유휴 영역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전송 병목현상도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5월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제품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 최고 용량 512GB CMM-D 개발, 업계 최초 CMM-D 2.0 개발 등에 성공했다. 지난 3월 글로벌 반도체 학회 '멤콘 2024'에서 CXL 기반 D램인 CMM-D, D램과 낸드를 함께 사용하는 CMM-H(Hybrid), 메모리 풀링 솔루션 CMM-B(Box) 등 다양한 CXL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 2분기엔 CXL 2.0을 지원하는 256GB(기가바이트) CMM-D 제품을 출시하고, 주요 고객들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 상무는 "하반기부터 CXL 2.0 기술을 탑재한 CPU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CXL 시장은 2027~2028년쯤 하키 스틱 모양처럼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금투협, 태국거래소와 금융투자 협력 논의

韓 자본시장 노하우 벤치마킹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태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약4630억달러(639조원)로 아세안(ASEAN)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태국증권거래소 이사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B자산운용, RISE ETF 순자산 12兆 돌파

'美 대표지수·채권' 성장 견인

KB자산운용이 자사의 RISE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2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RISE ETF의 순자산은 지난 15일 기준 12조490억원으로 2023년 말(9조7222억원) 대비 약 24% 증가했다.

올해 들어 ETF 수탁고의 성장을 이끈 주요 테마는 '미국 대표지수'와 '채권'이다.

KB자산운용은 현재 국내주식형 32개, 해외주식형 23개, 채권형 26개 등 총 109개 ETF 상품을 운용 중이다. 그중 한국·미국·중국·유럽·홍콩 등 해외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 7종은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수요가 있다.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 ETF는 올해 수탁고를 5200억원 넘게 불리며 합계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KB자산운용은 올해 'RISE 200위클리커

버드콜',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TO P10' 등의 ETF 상품 9종을 내놨다.

지난 3월 출시한 'RISE 200위클리커 버드콜'은 코스피200의 주간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만에 약 100만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출시 한 달여 만에 순자산 500억원을 돌파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지수형'은 낮은 보수로 운용하고, '테마형 상품'의 경우 차별화된 테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수습기자 jiw13@

지난달 외화증권 보관금액 1272억달러

전년비 22.2% 늘어... '사상 최대' 결재액 2552.8억달러... 31.6%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말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1273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1041억9000만달러) 보다 22.2%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결재금액은 2552억 8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31.6% 증가했다.

보관금액을 종류별로 보면 외화 주식은 946억 4000만달러로 2023년 말(768억 5000만달러) 대비 23.1% 증가했고, 외화 채권은 326억 9000만달러로 2023년 말(273억 4000만달러)과 비교해 19.6% 늘었다.

상위 5개 시장(미국, 유로시장, 일본, 홍콩, 중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를 차지했고,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3.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0.7%를 차지했다. 2023년 말(680억 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6.2% 증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주식이 차지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서다.

종류별 외화증권 결재금액은 외화주식이 2058억 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465억 8000만달러) 대비 40.4% 증가, 외화채권은 494억 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473억 90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전지원 수습기자